

## 기자

서지환과의 인터뷰 도중 걸려온 전화에 서지환은 자리를 잠시 뜬다. 서지환의 오랜 팬이었던 기자는 그 사이 집을 살피다, 박경진과 서지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한다. 사진을 구경하던 기자는 사진 속 이상한 점을 발견하며 서지환의 정체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. 이에 갑작스레 조금은 차가워지지만,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가식적으로 대한다. 급하게 인터뷰를 마무리 하고 집을 나서기 직전, 서지환에게 무언가를 의심의 눈초리로 묻는다.

### S#. 지환의 집, 낮

기자: 그래서 그 친구 분과는 아직도 친하게 지내세요?

지환: 아... 사실 그 친구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.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. 뭐가 그리 급해서 ... ( 체념하는 듯한 웃음을 짓는다)

(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) 하긴 매일 쳐먹던 그 상한 김밥이 지긋지긋하긴 했지 (피식 웃다가 이내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숙인다)

지환: (고개를 드는 동시에) 이번 출간일이... 그 친구 생일이예요. 경진이가 죽고 너무 힘들었지만, 그래도..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죠. 그 덕에 다시 영감도 얻고 작품 활동도 시작했어요.

기자: (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) 네... 그랬군요. 그런 아픔들이 지금의 작가님을 있게 한 거 아닐까.. 싶네요.

지환: (한숨을 쉬며 자세를 고쳐 앉으며) 맞아요... 사실- (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더니) 아, 죄송해요. 업무 연락이라 전화만 받고 올게요.

기자: (손으로 뺨을 가리키며) 아, 그럼요. 맘 편히 전화 받고 오세요.

지환: 아 그럼 잠시... (일어난다)

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쉬며 몸을 편히 고친 뒤 잠시동안 주변을 둘러보다, 무언가 발견하곤 일어나 걸어가는 기자.

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액자를 드는 기자. 액자 위를 손으로 털며 사진을 바라본다.

액자 안 사진 속에서 생일 고깔을 쓴 경진과 웃고 있는 지환. (액자 사진 속 지환과 경진 C.U, 지환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)

기자: 이 사람이... 박경진...?

액자 좌측 하단으로 눈을 옮기는 기자. 무언가를 보더니 살짝 당황한 표정이다. 지환의 목소리가 들리자 뒤를 돌아본다.

지환: 기자님,

전화를 끊으며 방으로 들어오는 지환.

지환: (전화를 바라보다 고개를 들며) 마저 인터뷰 진행...

조금 헉헉대며 앉아있는 기자.

지환: 할까요?

지환: (자리에 앉으며) 왜 그렇게 숨을...

지환: (손짓하며) 뭐, 물이라도..?

기자: (웃으며 손사레 치며) 아, 아니요. 마저 이야기해주세요.

## S#. 지환의 방

지환: (손을 움직이며 연극톤으로)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기자회견도 열어주시더라고요. (정적 후 손을 움츠려 내린다.)

내린 팔을 탁자 위에 모아 올려 손가락을 톱핑하는 지환

지환: 그런 이야기..? (머쓱한 듯 웃는다.)

무표정하게 지환의 손을 보다가 눈을 들며 미소를 짓는 기자.

기자: (눈을 들곤 미소를 지으며) 좋은 이야기 감사해요, 작가님.

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마저 대화할까 하며 일어나려는 지환.

지환: 아, 곧 저녁 때인데,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? (일어나려 하며) 냉장고에...

기자: 아, 아뇨.

기자: (무표정하게 짐 싸며) 이제 일어나봐야 할 것 같아요.

기자: (가방을 맨 후) 급한 일이 생겨서요. 이만 가볼게요.

걸어가며 수첩 속 '특집 기획 J'와의 인터뷰'라 적힌 글씨 위에 줄을 그어 짓는 기자.

지환: 아, 그러시겠어요?

기자: 네,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 내용이 나온 거 같아요.

기자: (뒤돌며) 아... 근데,

기자: (조심스럽게)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였어요...?

지환: (멈칫하며) 그게 무슨... (가슴팍을 가리키며) 당연히 제 이야기죠, 제.

살며시 미소 지으며 다시 돌아 나가는 기자.

기자: (미소 지으며) 아, 네. 그렇죠. (뒤돌며) 인터뷰 감사했습니다. (뒤를 슬며시 보고 고개를 까닥거리며) 안녕히 계세요.